

제목: "위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 야고보서 3장 13-18절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변화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1. 위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 1) 지혜의 모습은 선행입니다.
 - 2) 지혜의 결과는 성결/화평/관용/양순/공휼/선한열매/ 거짓과 편견 없음
2. 땅의 지혜인 정욕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 1) 땅의 지혜는 다툼/시기/자랑/거짓입니다.
 - 2) 땅의 지혜의 결과는 혼란/악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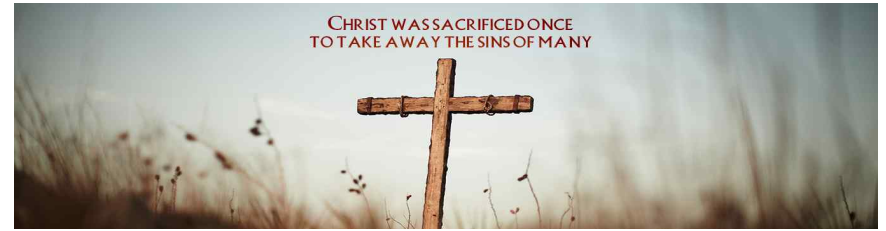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야고보서 3장 13-18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ames 3: 13-18 신약 374 페이지 Presider
- 말 씬 "위의 지혜를 구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507장) 저 북방 얼음 산과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 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누리고 계십니까)

더 많이 편해진 세월을 살다가 보니 걷는 것이 적어졌다. 물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많이 걸지만 그렇게 걷는 것과 건강을 위하여 걷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온갖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걷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하여 걷는 걸음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걸었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 지난 10년 동안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까? 역시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30년을 돌아보니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아침에 걸어 보려고 했고 그보다 더 젊었을 때에 등산을 했던 기억 외에는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을 보니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에 쫓겨서도 아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나를 위하여 걷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시 오레곤/벤쿠버로 이사를 온 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휩싸여 살면서 건강을 위하여 걷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으면 무엇 하나? 그것을 즐기고 느끼며 앞날에 살아갈 시간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나 저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 온갖 매연을 마시며 사는 장소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말씀해 주신다. 성경말씀과 설교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입으며 소화하고 누리라고 하신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저 좋은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놓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회에 왔는가?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살면 무엇 하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들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며 누려야 한다. 그 때에 예수 제자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새해 달력

2023년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물을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